ISSUE BRIEF

이슈브리프 300호
(2021.10.18)

김정은 시대 과학기술행사 열풍

제300호

변상정 한반도전략연구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INSS
www.inss.re.kr

국문초록

김정은 정권 출범 후 매년 북한 전역에서 과학기술성과전시회와 발표회, 전람회, 축전, 경연 등 과학기술행사 열풍이 불고 있다. 김정은 정권이 과학기술행사에 대해, 세계의 첨단과학기술 성과를 제때 도입함으로써 적은 노력과 자금으로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을 더 빨리 촉진시키는 효과적인 방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에도 당 간부들의 오래된 '눈가림식' 업무 관성과 전시품이 시제품에 그치고 대량생산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등 일회성의 보여주기식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고강도 국제제재와 코로나19 방역 봉쇄 장기화로 인한 원료·자재·설비의 국산화와 재자원화 드라이브로 당·정 간부들의 압박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전략의 근본적인 전환 없이 의식변화와 업무태도 개선 촉구만으로는 현실 타개가 어려운 실정이다.

핵심어 : 김정은 시대, 과학기술행사, 과학기술발표회, 전민과학기술인재화, 국산화

김정은 시대 과학기술행사 열풍

변상정 (한반도전략연구실)

'인민의 낙원'은 과학기술이 발전한 나라

김정은 시대 10년을 기념해 조선사회과학자협회가 최근 발간한 선전책자 『인민의 아들 김정은 동지』에서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하는 '인민의 낙원'은 과학기술이 발전된 나라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2013년 6월 세계 어느 나라 정치가도 제기하지 못한 '전민과학기술인재화'라는 원대한 구상을 제시했다고 한다.

자본주의 체제와 달리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노동자 대중을 동원한 기술혁신운동이 매우 중요하다. 김일성 정권이 '전민무장화'의 구호로 전체 인민들을 정치사상적·군사기술적으로 무장시킨 것처럼 김정은 정권은 전문적인 과학자, 기술자만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 등 전체 인민 누구나 대학 졸업 정도의 지식수준과 현대과학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전민과학기술인재화'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최신 과학기술자료를 중앙에서 말단까지 보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 결과 2016년 1월에 개관한 과학기술전당이 구축한 과학기술보급망에 2018년 8월까지 전국의 거의 모든 기관·기업·공장·협동농장이 가입했고, 많은 지역에 과학기술보급실이 설치되었다.

김 위원장이 '인민의 낙원'을 건설하기 위해 다음으로 제시한 방안은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이다. 김정은 정권 출범 직후 2012년 첫 신년공동사설에서 김 위원장은 김정일의 '강성대국' 건설 목표 중 미완의 '경제강국'을 대체·계승한, 새 세기 산업혁명을 통한 '지식경제강국' 건설을 선언하였다. 지식경제강국은 북한의 정치체제와 경제구조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식경제시대에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대안으로, 선대의 정책을 계승하되 과학기술과 교육개혁에 역점을 두었다.

김정은 시대 과학기술행사 열풍

김 위원장은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구현하고 전국에 과학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직접 과학기술행사 개최와 참여를 독려하였다. 매년 북한 전역에서 각 기관·부문별 과학기술성과전시회 및 발표회, 전람회, 축전, 경연 등 과학기술행사가 활발히 개최되고 있으며, 그 규모와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매년 전국 각 도와 직할시에서 해당 지역 과학기술위원회 주최로 지역의 과학기술전시회 및 발표회가 개최되고 있다. 둘째, 기관과 기업소가 비교적 많이 설치된 군(郡)에서는 추가적으로 과학기술전시회 및 발표회가 열리고 있다. 셋째, 기관, 기업 단위별로 과학기술행사가 개최되고, 특히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건축대학, 평양기계대학, 함흥수리동력대학 등 대학과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성과가 발표된다. 넷째, 각종 기념일에 전국과학기술축전이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전국 규모의 과학기술행사

북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개최된 전국 규모의 과학기술행사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정보화국 주최로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2021'(10.1~10.29)이 개막돼 각 성, 중앙기관, 각 도(직할시)인민위원회, 과학연구기관, 교육 및 보건기관 등 수백 개 기관이 1,200여 건의 연구성과와 정보기술제품을 출품했다. 올해 전람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상전람회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국가망에 시상품 소개, 3차원 전시장, 2차원 전시장, 인공지능프로그램경연, 발표회, 군중평가 및 교류마당 등을 탑재했다. '자력갱생과 정보화 열풍'을 주제로 한 이번 전람회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의 첫해인 올해 달성한 정보화, 정보산업 및 정보기술성과와 제품들을 선전하고, 교류와 보급을 통해 과학기술발전을 추동하는 것이 목적이다.

김정은 정권은 2016년 대내 IT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정보화국'을 창설했고, '국가정보화발전전략'(2016~2020년)에 따라 매년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를 개최해 국가정보화와 정보산업발전에서 이룬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2019년 '수자경제와 정보화열풍'이라는 주제로 열린 전람회에서는 인공지능프로그램경연, 프로그램작성경연, 로봇축구경기가 진행되었고, 특히 우수한 평가를 받은 '차번호

인식프로그램'(김일성종합대학 정보과학부 개발)이 제품으로 출시돼 많은 기관에서 도입 중이라고 한다.

2018년부터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주요 대학에 인공지능학과를 신설해 인공지능(AI) 외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의 새로운 기술접목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정권이 "기계설비와 생산공정의 CNC화, 무인화, 첨단산업 창설과 확대발전과정"인 '새 세기 산업혁명'이 선대 지도자 김정일의 영도로 추진되었다고 공식화한 것처럼 훗날 북한 당국이 'AI, IoT, 빅 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개발'을 김정은의 업적으로 명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는 '재자원화기술 경험 발표회'(9.27~10.1)를 화상회의로 진행했다. 이번 발표회는, 특히 고강도 국제제재와 코로나19 방역 봉쇄의 장기화로 인한 원료·자재·설비 수입 중단에 대한 대책인 국산화와 재자원화를 실현한 과학기술성과와 경험을 보급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과학원, 강계농림대학,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사리원방직공장, 은률광산 등 70여 개 기관의 간부와 과학자, 기술자, 교원, 3대혁명소조원 등이 참가했다. 경공업, 농업, 화학, 건재, 식료, 일용분과로 나눠 진행된 발표회에는 150여 건의 제안이 제출됐다고 한다. 지난 8월에는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와 재자원화, 새제품 개발, 질제고'라는 주제로 '전국화장품부문 과학기술발표회 및 학술토론회'(8.26~27)가 개최된 바도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5년 2월 평양화장품공장을 방문해 색조화장품의 번짐현상('너구리 눈')을 지적하고 제품의 질 향상을 주문하며 공장설비 교체를 지시하는 등 화장품의 질적 향상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 왔다.

셋째, '나노산업 창설을 위한 토대 강화'의 주제로 '전국나노기술부문 과학기술전시회-2021'이 가상전시회 방식으로 10월 하순에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와 올해 국가과학원,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과학교육기관과 해당 기관에서 이룬 나노기술부문 과학기술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2016년 7차 당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지식경제의 기둥인 정보기술(IT), 생명공학(BT), 나노기술(NT) 등의 첨단기술산업이 경제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추적 역할을 높일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국가과학원을 IT·BT·NT, 자동화 등의 첨단기술과 핵심 산업기술 중심으로 개편하고, '국가나노기술중심'을 신설(2013년)하였다.

과학기술행사에 대한 인식과 한계

김정은 정권은 과학기술행사에 대해, 급속히 발전하는 첨단과학기술 성과를 제때 도입함으로써 적은 노력과 자금으로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을 더 빨리 촉진시키는 효과적인 방도라고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자본주의 사회처럼 관계자들이 행사에 적극 참가하는 과정을 통해 과학연구활동에서 제기되는 문제, 경제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향과 방도를 찾거나 협동연구와 공동연구를 위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기도 한다. 김정은 정권은 향후 전국의 모든 간부와 근로자들이 참가하는 대중적인 과학기술 교류 협력과 경쟁의 장(場)이 되도록 과학기술행사 참가와 선전을 강화하면서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원대한 구상'과 달리 현실에서는 고질적인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첫째, 당 간부들의 '눈가림식' 업무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한 사례로, 9월 22일자 노동신문은 지방의 종합식료공장에서 만든 여러 종의 식료품들이 도(道) 주최 '인민소비품전시회'에 출품돼 품질인증을 받고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그 후 원료 부족으로 생산을 원만히 진행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전시회에 식료품을 출품하기 위해 먼 지역에서 원료를 공수해 생산한 결과 전시회에 출품된 식료품들이 시제품으로만 남고 생산 정상화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선대에 이어 김정은 시대에도 많은 과학기술행사가 과학기술 발전과 제품생산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당의 과학기술정책 집행 관철과 사회적 분위기 형성을 위한 의무적인 이벤트에 그치고 있다. 일회성 보여주기식 전시회가 열리고, 시제품이 대량생산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방치되는 것은 '극장국가'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고강도 국제제재와 코로나19 방역 봉쇄 장기화로 인한 원료·자재·설비의 국산화와 재자원화 드라이브로 당·정 간부들의 압박감이 가중되어온 것도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전략의 근본적인 전환이 없이 간부들의 의식 변화와 업무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것만으로는 현실을 타개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이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